

한국 근대소설의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적용과 그 가능성 탐색*

전 흥 남(한려대)

1. 서론

근래에 들어 인문학 종사자들은 인문학 위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문학의 경우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 인접 학문과의 연계 및 제휴를 통한 학제적 연구, 대중과의 소통에 비중을 둔 연구방법론의 개발, 디지털 문학 및 문화와의 연대를 통한 영역의 확산,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적용 등 여러 논의와 방법들을 시도해 왔다. 당연히 연구물들이 많이 축적되고 분명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미흡하다. 국문학의 경우도 인문학의 위기와 무관할 수 없는 만큼 연구자들 스스로 국문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연구자들 스스로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지속적인 노력 외에 별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1-A00731)

다른 대안이나 처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학치료’¹⁾에 대한 관심이나 적용과 관련된 문학연구는 연구자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문학치료’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다. 고전문학 분야에서 주로 ‘문학치료학’적 관점을 작품에 적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연구발표가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²⁾ 고전문학 분야에서의 이러한 연구 활동은 본고의 작성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컸다.

여기서 문학치료(학)적 관점은 “문학의 본질적인 기능과 효용이 문화적 규범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심리적 장애를 치유하는데 있다.”³⁾고 보는 문학치료학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있다. 문학치료는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지니지 못한 사람을 문학작품을 통하여 정상적인 심리상태로 돌려놓고자 하는 일종의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치료를 단순히 책 읽기나 글쓰기가 아니라 치료자가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적절히 중재하고 개입함으로써 참여자의 내적인 심리역동을 얻어내는 것이다. 요컨대, 문학치료는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자발성, 창의성, 역동성을 얻어내는 치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치료는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다. 문학 치료는 정신과 의사들의 치료방법이나 대상과도 일정한 차이를 지닐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연구는 인문학 영역의 확산 및 학제적 연구 그리고 인문학의 위기와 관련해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문학치료학 관점의 적용과 그 가능성의 탐색을 염두

-
- 1) 이 용어에 대한 혼란이 일부 있다. 일부에서는 독서치료라 쓰고, 일부에서는 시치료, 이야기치료, 글쓰기 치료, 드라마치료와 같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림치료나 리듬치료라는 말을 쓰는 대신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범박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 글의 성격에 비추어 굳이 가장 유사한 개념을 든다면 독서치료를 들 수 있는 바, 문맥에 따라서는 문학치료를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2) 고전문학 분야에서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적용과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경우로 정운채의 논저를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 치료, 2006 참조.
 - 3) 정운채, 「문학치료방법론」, 한국문학치료학회 제 1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3.11. 22.

에 두면서 근대소설에 나타난 웃음⁴⁾의 기제와 그 적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김유정의 소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김유정의 소설 중에서 특히 「봄·봄」과 「동백꽃」이 유머스럽고 한국적 해학이 넘쳐나는 장면과 묘사가 유독 많은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김유정의 소설 「봄·봄」과 「동백꽃」에 나타난 웃음의 기제를 통해서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적용과 그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성격의 글이다.⁵⁾

2. 문학치료(학) 방법론의 밑그림: 성격 및 이론적 배경

문학을 치료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문학치료학은 문학이 서사(敍事)를 바탕으로 성립한 점을 중요시 한다. 그리고 문학은 우리들이 향유하는 작품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만 보는 종래의 시각과 달리 문학은 우리들의 삶으로도 구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작품으로 구현된 것으로부터 ‘작품서사’를 분석해 내고, 삶으로 구현된 것으로부터 ‘자기서사(自己敍事)’를 분석해 낸다. 6) 종래의 문학연구에서는 작품으로 구현된 하나의 문학만을 주목하였다면, 문학치료학에서는 작품으로 구현된 문학과 함께 삶으로 구현된 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종래에도 작품을 만들어 낸 작가나 작품을 향유하는 독자에 대한 관심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작가나 독자의 삶이 어떠한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작가나 독자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내면의 문학

4) 웃음의 형태로는 작은 웃음(微笑)과 큰 웃음(哄笑), 폭소가 터져 나오는 웃음(爆笑) 등이 있다. 내용으로도 기쁜 웃음, 서글픈 웃음, 억지 웃음, 쓴 웃음, 비웃음 등 살펴보면 무척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웃음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웃음’은 유머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유발된 선의적이고 긍정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5)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적용과 그 효용에 대해서는 주로 고전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근현대문학에도 적용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 필자는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연구와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우선 김유정과 채만식, 그리고 이상의 소설에 나타난 웃음의 기제와 효용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성격의 글을 준비 중에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의 출발선상에 있는 연구물이기도 하다.

6) ‘작품서사’와 ‘자기서사’라는 용어의 사용 및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운채의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8), 159-176쪽 참조.

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문학연구에서 작가나 독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역사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 등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작가나 독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역사학이나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등에 기대는 것 자체가 나쁠 수는 없다. 그러나 문학 주변의 학문에만 기대고 독자적인 문학적 방법론, 문학적 관점, 그리고 문학적 입지가 약하다면 문학 연구 자체가 안고 있는 바림직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다.

문학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전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학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특정 작품서사나 자기서사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성격, 어떠한 수준의 작품서사이며 자기서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서사의 위치나 성격, 그리고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작품 서사의 위치나 성격 그리고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면 치료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도 없다. 작품서사나 자기서사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 서사와 자기서사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결과를 축적해 나가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귀납적인 방법만으로는 쉽사리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연역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여기서 연역적인 방법이란 서사의 본질과 핵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문학치료학적 관점이란 말이 아직은 학계에서 다소 생소한 만큼 이와 관련된 이론적 토대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려는 작업도 요구된다. 문학치료는 문학을 통해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는 행위라면⁷⁾, 문학치료학은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작품이 지닌 문학치료적 가능성이나 요소를 찾기도 하고,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따

7) 루빈은 문학치료의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시설에서의 문학치료, 임상에서의 문학치료, 그리고 발달적 차원의 문학치료다. 문학치료에 대한 가장 정통한 정의는 미국문학치료 협회(NAPT)의 경우다. “문학치료는 통합적 치료방법으로서 신체의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수용한다. 이 때 문학이 주도적으로 혹은 부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훈련받은 문학치료사가 참여자들에게 글쓰기 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감정을 표현하게 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변학수,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6, 48쪽.

라서 이 글에서 문학치료학적 관점이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와는 다르다. 궁극적으로 문학치료학적 관점도 현대인(독자들)의 질병 치료 행위와 별개일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문학치료학 자체가 여기에 비중을 둘 만큼 그 이론적 토대나 방법이 발전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문학치료학적 관점에 입각하는 만큼 독자(또는 환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자기서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계가 바로 치료가 진행되는 첫 단계이며 자기서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치료가 종료되는 지점이다. 결론적으로 문학치료의 과정이란 환자의 자기서사, 작품서사, 치료자의 서사가 상호 작용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때 환자의 자기서사를 구체화시키고 분석하는 일은 치료를 위한 선결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독자들로 하여금 인상적인 장면 분석,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의 재구성, 그리고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한 재창조 같은 활동을 통해 독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실어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역시 텍스트의 내밀한 분석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문학치료학이 치료를 표방한다고 해서 ‘문학’을 소박해 버리고 조금하게 치료 쪽으로 달려갈 때, 문학과 읽고 치료도 읽게 될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학의 원천으로부터 인간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길어 올리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일이 우리 고유의 몫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학치료학적 관점은 기존의 연구방법이나 텍스트 분석과 별개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다만, 독자반응의 방식에 보다 비중을 두려는 연구방법과 동궐을 이루기 때문에 독자의 반응과 태도를 보다 더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문학치료(학)의 이론적 토대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⁹⁾ 국제적으로 약물치료 분야에서 선구자로 이미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예술치료 측면에서도 전문가인 페츨트(Petzold)는 현상학적, 심리분석적인 입장이

8) 박기석, 「문학치료학 연구 서설」, 『문학치료연구』 제1집, 2004.08, 3쪽.

9) 문학치료 기능과 중재적 기능에 주목하여 국내에 이와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고, 또 문학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리학, 의학 등 인접학문과의 학제적인 교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우로 변학수의 논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본고 역시 문학치료(학)의 일반적 논의 및 이론적 배경은 변학수의 논저에 힘입은 바 크다. 구체적인 것은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5, 91-121쪽 및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6, 15-47쪽 참조.

문학치료의 이론적 영역의 명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는 메를로-퐁티(Merleau-Ponty), 폴 리코어(Paul Ricoeur)를 비롯한 프랑스 현상학과와 라캉의 심리분석의 초안에 연구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치료 효과들에 대한 원리는 모든 심리치료이론과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 계획에 대한 임상심리학에서의 포괄적이고 모델 이론적인 방향 제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쓰기 혹은 읽기가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효과 면에서 실효를 거두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평정’, ‘확신’, ‘안정’, ‘긴장완화’와 같은 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텍스트에서 감명을 받게 하고 심리적·감정적으로 어떤 동기를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가 수용-인지 영역에서 흥미를 일깨우고 새로운 ‘인식들’이 자극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문학치료는 최소한 이원적 형식, 즉 감정과 인지의 형식에서 모두 가능하다. 이런 설명에 따라 심리적 기능에 관한 모델과 심리학적 연구가 구별된다.¹⁰⁾

최근 독일에서는 특히 치옴피(Ciampi, 1985)가 그의 ‘감정 논리’란 개념으로 정신분열증의 심리병리학 이해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심리적, 심리 분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론적, 심리적 측면 또한 설득력 있게 통합시키고 있다. 그가 제시한 이론의 구조는 자기(자기대리자)와 주변(대상대리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재미있는), 부정적(혐오적인, 공격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즉, 감정적 융합은 자신과 환경을 구별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한다. 감정적 융합과 인지적 구별의 과정이 불균등하게 발전할 때 심리병리학적으로 중요한 ‘상처’¹¹⁾ 개념을 형성한다. 이 상처들이 발전과정에서 겪게 되는 극단적 부담 하에서 경직되고 병적인 소질이나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치료란 결국 이런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 요인들을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선 병리학적인 특성을 지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인지적 양상을 강화하면서 구조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학의 치료적 효과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인지, 생각, 기억, 느낌, 욕구, 행위 등은 심리적 과정이자 심리적 상황이다.

10) 변학수, 앞의 책, 97쪽.

11) 여기서 말하는 상처란 결핍(deficit), 외상(trauma), 장애(disorder), 갈등(conflict) 등을 포괄한다.

이런 과정과 상황은 심리모형의 구조적 특성에 달려 있다. 즉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정적 자기상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부정적 인식 내지는 부정적 생각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문학치료의 목표는 자기 자신에게서 긍정적인 것들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은 언어와 연결되어 진행된다. 그러나 그것은 습득된 이차적 기호체계로서의 언어일 뿐 아니라 일차적 기호체계로서의 그림언어를 말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음악치료나 미술치료에서는 문학치료와는 달리 일차적 기호체계를 특수하게 사용하여 영상의 영역이 활성화된다.¹²⁾ 이에 반해 문학치료는 이런 예술수단의 치료보다는 간접적이고 이차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역으로 예술이론에서 차지하는 문학이론의 차별성에 적용시킬 수 있다. 물론 심리치료에서 분석적-과학적 방법이 창조적 치료 영역에서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요가나 주술 같은 동양적, 정신적 방법을 더 나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여기에 문학과 문학수용의 형이상학적이고 불투명한 생각들이 아직도 그 절대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숨어 있다. 그러나 문학의 기능이 그렇게 단순하고 막연한 영역만은 아니다. 학문으로서의 (문학)심리학과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심리치료의 현장 사이의 복잡 미묘한 긴장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런 문학치료의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상호 주관적 측면에서 도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기술과 학문이 동시에 가지는, 즉 어떤 처방으로서의 치료와 이론적 바탕으로서의 치료가 갖는 딜레마 또한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병력은 사실이어야 하고 또한 있는 그대로 서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치료의 텍스트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문학텍스트가 현실적으로 신빙성 있는 작품은 아닌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¹³⁾

3.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적용과 사례: 김유정의 소설에 나타난 웃음의 기제

요즈음 현대인들은 도처에 널린 웃음조차 잃어 가는 추세라고 말한다. 그래서 향간에는 유머감각이 풍부한 사람이 주변의 시선을 끌고, 심지어 유머지

12) 변학수, 앞의 책, 98쪽.

13) 위의 책, 98-99쪽 참조.

수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한 척도로 삼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는 진정 대중들이 웃음을 갈망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해 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물론 웃음의 종류는 다양하고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삶이 각박 할수록 따뜻한 웃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다. 유머(Humour)¹⁴⁾가 주는 윤택과 활력, 마음을 위로하고 분위기를 풀어 인간 관계를 치유하며 세상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웃음의 문학’ 하면 떠오르는 작가로 김유정(1908-1937)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요절로 인해 4년 남짓한 짧은 문단활동이었지만 「봄봄」 「동백꽃」 「땡별」 「금파는 콩밭」, 「안해」 등의 작품에서 보여준 그 넘치는 해학과 유머스러운 시대풍자는 그가 활동한 30년대 후반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소통된다. ¹⁵⁾ 특히 「봄 · 봄」과 「동백꽃」은 유머스럽고 한국적 해학이 넘쳐나는 장면과 묘사가 유독 많은 작품이다. 우선 김유정의 「봄 · 봄」의 한 장면을 보자.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

“글세,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떼냐?”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 낳지유?(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귀배기가 작다)”

14) 유머(Humour)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다. 유머는 기지(wit) 혹은 해학으로 옮겨지고 있으나 적절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유머가 성격적 · 기질적이라면 기지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머는 태도, 동작, 표현, 말씨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기지는 언어적 표현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또 유머는 풍자 혹은 골계와도 친연성을 지니고 있지만 풍자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유머는 익살, 공격성을 피지 않은 웃음, 무해한 웃음, 따뜻한 웃음의 성격을 지닌다. 반면 풍자는 빈정거림, 조소, 비꼼, 의도를 숨긴 웃음, 차거운 웃음, 공격성을 띤 웃음(무기로써 사용되어지는 웃음)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유머와 해학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범주에서 사용한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78-80면 참조.

15) 김유정 문학에 대한 선행학들의 연구경향은 대체로 소설에 나타난 해학성, 또는 풍자와 관련한 연구물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순, 「김유정 문학 연구사」,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한림대 아시아문화 연구소, 1997) 및 같은 책, 참고문헌 부분 참조.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곁길 웃더니(그러나 암만 해두 돌 씹은 상이다)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풀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푹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꼭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근하고 싸리문꺼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뚝뚝 쏘았다. 이런 상년의 자식! 하고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¹⁶⁾ (고딕표시-인용자)

작품에서 빚어지는 해학성의 시발은 우선 등장하는 인물들의 우직함과 천진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머슴인 ‘나’와 주인인 ‘봉필’이가 빚어내는 인간관계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지만, 주인집 딸 점순이가 자라면 성례하기로 하고 사경도 받지 않고 일하는 ‘나’에게는 성례야말로 모든 행위의 목적인 것이다. 구장 앞에서 벌이는 나의 행동이 우리에게 웃음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처절하고 안타까운 소망(점순이와의 성례를 이루려는)이 잠재해 있음을 상기한다면 애소(또는 비극성)와도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¹⁷⁾ 특히 유정의 소설에서 결말부분의 희극적 연출은 하나의 구조적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해학은 언제나 주인공의 무지와 우매함에서 연유하고 있다. 비극이 될 소재를 유정은 희극으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의 선량함에 웃고 말았지만 사실은 그의 처지를 동정하고 슬퍼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¹⁸⁾

다음은 「봄·봄」을 읽으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장면이나 익살스러운 표현을 항목화해 본 것이다.¹⁹⁾

- 16) 김유정, 「봄·봄」, 『동백꽃』, 창작과비평사, 2005, 312쪽. 이 글에서의 김유정 작품의 텍스트는 여기에 의존하며 작품과 관련된 인용은 인용말미에 인용한 쪽수만 밝힌다.
- 17) 유정의 다른 작품 「총각과 맹꽂이」, 「땡벌」에서도 이러한 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속에도 애소가 어리어 있으며, 이것은 김유정 문학에 나타나는 해학성의 한 특질이기도 하다.
- 18) 김상태, 「김유정과 해학의 미학」, 전광용 외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322쪽. 이 글에서 김상태는, 김유정의 소설은 상황적 아이러니(situational irony), 언어적 아이러니(혹은 표현적 아이러니, verbal irony)가 모두 드러난다고 보았다.
- 19) 본 대학에서 현대문학 교양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34명(남2, 여32)을 대상으로 해서 김유정의 「봄·봄」과 「동백꽃」을 읽으면서 웃음 유발적인 장면이나 표현을 제시하라는 과제를 부여하고 적어도 3명 이상이 동의한 장면이나 표현을 항목화한 것이다. 사전에 해학적인 장면이나 표현을 제시한 뒤 의견을 묻는 방식을 지양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을 토대로 항목화함으로써 독자의 능동적 읽기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웃음 유발적인

1)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박이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294쪽)

2) “제----미 키두!”(294 쪽)

3) 개돼지는 폭폭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빠다귀가 움츠러드나보다 하고 내가 년쫓년쫓이 그 물을 대신 길어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서낭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담엔 떡 갖다놓고 고사드립죠키까.” 하고 치성도 한두번 드린 것도 아니다. 어떻게 돼먹은 낀지 이래도 막무가내니----(294-95쪽)

4) “이 자식아, 일 하다 말면 누굴 망해놀 셈속이냐. 이 대가길 까놀 자식!”(296쪽)

5)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298쪽)

6)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올에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현찰히들 크건만 이진 위아래가 몽툭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 외 같다. (298-299쪽)

7) 밥을 나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299쪽)

8*) 점순이와 나는 내외를 해야 하는 처지이나 그릇을 챙기면서 “밤낮 일만 하다 말텐가!”하면서 되알지게 나에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치는 장면(299-300쪽)

9*) 구장이 서울에 갔다 오더니 점잖아야 한다고 윗수염이 양쪽으로 뽕족이 뻗치고 그걸 애행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과 길게 길러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말하는 장면(300-301쪽)

10)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낀 언제 자라지유? 다 구만두구 사경 내슈.”

장면 안에 익살스러운 대사나 표현도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다 보니 항목을 계량화 하는 과정에서 설문에 응한 학생 수보다 항목별로 응답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떴냐?”

11)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 낳지유?”(사실 장모님은 점순 이보다도 컷배기 하나가 작다.)

12) 장인님은 아 말을 듣고 꺄꺄 웃더니(그러나 암만해도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꿔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푹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꺄 떼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쪄고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쏘는 그 꼴이 보기에 푹 쟁그라웠다.(301-302쪽)

13) “임마, 봉필일 모판에다 거꾸루 박아놓지 뭘 어떡해?”(303쪽)

14) “섬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305쪽)

15) “이걸 까셀라부다”(307쪽)

16*) 나와 장인이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서로 싸움하는 장면(308-309쪽)

17*) 나와 장인이 바짓가랑이를 서로 잡으며 싸움하다 장인이 위기에 몰려 자 내 편이 될 줄 알았던 점순이마저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장면(309쪽)

항목별로 독자(학생)들의 반응을 응답 수를 토대로 계량화하면 다음과 같다.

장면 표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응답수	17	4	11	7	4	8	3	8	3	3	13	11	3	3	5	11	6

위의 항목을 장면 위주로 다시 재배열해 보면 항목 1)2)3)4)5)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내가 불평하는 장면’으로 요약된다. 「봄·봄」을 읽은 학생들이 독자 입장에서 가장 유머스럽고 해학적인 장면(혹은 ‘웃기는 장면’)으로 제시한 것이다(43명). 다음으로 항목 9)10)11)12)는 ‘구장 앞에서 ‘나’와 장인 어른이 티격대격하면서 은근슬쩍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으로 요약되는데, 두번째로 웃음 유발적인 장면으로 제시한 것이다(30명). 항목 15)16)17)은 ‘나와 장인이 바짓가랑이를 서로 잡으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으로 요약되는 바, 작품을 읽은 학생들이 세 번째로 해학적인 장면으로 제시한

것이다(22명). 독자의 입장에서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내가 불평하는 장면’이 가장 웃음 유발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것은 김유정의 소설이 유머스럽고 해학적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성상 작품의 전반부에 있다 보니 더 인상적으로 다가온 측면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후 나오는 장면이 이것을 압도할 만한 장면이나 표현이 부재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작품을 읽은 한 학생의 반응을 들어보자.

“이 자식아, 미치 커야지, 조걸 데리구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온!”하는 장인의 대사를 보면 언제나 생애 봄날을 기다리며 장인을 원망하는 주인공과 조금이라도 주인공을 더 부러먹으려고 머리를 굴리는 장인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두 사람, 장인과 데릴사위로 온 주인공 나 사이에 갈등이 없으면 이 작품은 재미없었을 것이다. 두 인물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긴장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오히려 재미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당초 장인의 의도를 알아내지 못하고 고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장인은 교활함의 극치를 보였지만 왠지 알미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장인이 없다면 웃긴 상황이 없었을 것이다. 그 외에 재미있는 대사는 “이자식아, 일 허다 누굴 망해 놓을 속셈이나, 이 대가릴 까놓자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비속어 말이 섞임으로써 더 현실성 있고 재미를 더 했던 것 같다.

학생의 독후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시각에서 「봄·봄」을 읽어도 해학적인 장면과 표현으로 웃음이 유발되지만 작중인물들에게서 연민의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일제 강점기에 이 작품을 접한 독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만, 당시의 독자들에 비해 오늘날의 독자는 그 실감도가 떨어지는 측면은 있다. 요컨대 당시의 독자들 역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웃음이 유발되지만 한편으로 애소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인물은 웃음 뒤에는 삶의 애환과 서러움이 잠복되어 있다. 한마디로 아픈 웃음, 또는 어두운 해학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독자들은 김유정의 문학의 이러한 측면까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작품을 접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문학을 접하는 독자의 수준이나 교양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김유정의 소설은 유머스럽고 해학적

인 장면을 통한 웃음의 유발 요인이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 그 빈도 수가 많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김유정의 소설에서 유머를 빼버리면 참으로 처절한 현실과 극한상황 속에 허덕이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현실과 인간조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만큼 강렬하다.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김유정은 유머로 처절한 현실과 인간조건을 잠재화하고 있다. 그것은 그러한 현실을 드러내 보는 것보다 웃음을 통하여 이 참담한 상황에서 독자를 해방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²⁰⁾ 그러므로 유정은 현실의 어두움을 예각적으로 파헤치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는 하지만 웃음을 통하여 카타르시스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대응하는 유정의 작중인물들의 태도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긍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들은 그럼으로 해서 대상(현실)에 대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절망적 상황에 대한 역설과 아이러니와 패러디가 자유롭게 구사된다. 작중인물의 회극적 대응은 일종의 자기방어의 수단이 된다. 즉 이들 작중인물들은 더 이상 불만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직접적인 기대감의 표출이 없이 그 억압된 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정의 문학은 해학성 이면에 비극성이 자리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 조선 농촌의 모순된 경제구조 내지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인해서 생존 자체가 크게 위협받았던 당시의 조선 농민들이 결국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잃고 왜곡되고 기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소설들은 특이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대상으로 삼고 읽을 때 독자들은 일단 유머스럽고 해학적인 장면들이 가슴에 더 와 닿는다. 따라서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문학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정화적 측면, 혹은 카타르시스를 통한 심리적 쾌감을 느끼게 된다.²¹⁾ 뿐만 아니라 김유정의 소설에 나타난 해학이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정서 속에 맥맥히 흐르고 있는 한국적 정조를 포착하고 있는 점

20) 김현실, 「〈안해〉의 해학성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제 115호, 1995. 12, 327쪽.

21) 문학치료는 단순히 해소에만 중점을 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에 구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학치료는 무의식이나 억압된 감정에 접근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어 의미의 형상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정신분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변학수·채연숙·김춘경, 「문학치료와 현대인의 정신병리」, 『뫼히너와 현대문학』, 26권, 2006, 참조.

도 웃음을 배가시킨 측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 「동백꽃」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봄·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동백꽃」을 읽으면서 유머스러운 장면이나 해학적인 표현 위주로 이것을 항목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박하게* 생긴 놈)

2*) 내가 울타리 엮는데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너 일하기 좋니?”하면서 놀리는 장면(311쪽)

3)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311쪽)

4*) 봄 감자를 건네며 “느 집엔 이거 없지?”하고 건네는 것을 내가 거절하지 얼굴이 빨개져서 달아나는 장면(312-313쪽)

5*) 봄 감자 거절 후,내가 산에서 내려 온 때에 맞춰 우리 집 씨암닭을 잡아다 불기 짝을 때려주는 장면(314쪽)

6*) 점순이는 닭싸움을 시킨 뒤에도 나를 향해 들릴듯말듯한 음성으로 “애! 너 배넛병신*이지?” “애! 너 느 아버지 고자라지?”하면서 나를 놀리는 장면(315쪽)

7-1*) 씹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고 생각해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먹이는 장면(316쪽)

7-2*) 고추장을 덜 먹어서 점순이의 닭에게 당하는 것으로 오인해 고추장을 더 먹이는 장면(317쪽)

7-3*) 고추장을 너무 많이 먹여 질식하여 죽으면 아버지에게 혼날까 두려워 닭을 숨기려는 장면 (317쪽)

8)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하* 일 잘하고 얼굴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318쪽)

9*) 점순이의 닭을 죽이고 우는 나에게 “ 닭 죽은 건 염려마라. 내 안 이를 테니”하면서 나를 달래주는 점순이의 모습이 묘사된 장면(319쪽)

10*) 뒤통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펴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319-320쪽)

11*) 동백꽃 속에 점순이와 함께 있다가 어머니에게 들켜 뿔뿔히 몰래 흩어지는 장면(320쪽)

「동백꽃」을 읽은 뒤 응답한 학생들의 설문을 토대로 항목별로 이것을 계량화하면 다음과 같다.

장면/ 표현	1	2	3	4	5	6	7-1	7-2	7-3	8	9	10	11
응답수	3	3	5	18	13	3	14	5	5	8	12	3	7

위의 도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동백꽃」을 읽은 학생들이 가장 익살스럽고 유머스러운 장면은 항목7-1)7-2)7-3)에 해당하는 ‘뽕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들고 있다(24명), 그 다음으로 장면으로는 결말부분에 해당하는 항목 9)10)11)으로 ‘점순이가 닭을 죽이고 우는 나를 달랜 뒤 벌어지는 로맨틱한 장면’(22)이다. 세 번째로 웃음 유발적인 장면은 항목4)로 “느 집엔 이거 없지?”하고 봄 감자를 건네는 점순이를 거절하자 점순이 얼굴이 빨개져서 달아나는 장면을 들고 있다(18명). ‘봄 감자를 건네다 거절당하자 점순이가 보이는 반응’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항목 5)에 해당하는 ‘봄 감자 거절 이후, 내가 산에서 내려 온 때에 맞춰 우리 집 씨암닭을 잡아다 불기 짝을 때려주는 장면’(13명)보다 더 익살스럽고 해학적으로 다가온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이 주로 여학생이다 보니 점순이의 순박한 애정 표현 방식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측면도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 같다. 이처럼 독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장면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독자마다 각기 다를 것이다. 학생들의 감상문 일부를 인용해 본다.

1)--닭싸움을 통한 두 사람의 대립을 이룬 장면을 읽으면서 자못 긴장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닭의 죽음에서 보여주는 나의 순박함과 점순이와의 갈등은 비록 성격차이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희극적이었다. 순수한 시골 소녀와 소년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을 신분계층을 넘어 사춘기 두 남녀가 사랑에 눈 뜨는 과정을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인 것 같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과 같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또 동백꽃 주인공들처럼 꽃의 향기에 취해 보이기도 하고 낭만이 있는 시골생활을 한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독자A)

2)---수탉에게 힘을 쓰리고 고추장을 먹인 장면은 어린이다운 순수한 사고방식이 담겨져 있었고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혀 버리는 장면은 원래 동백꽃은 빨강지만 노란색을 이용해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여 아름답고 풋풋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독자B)

3)---서로 싸우다 결국 나이 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중요 부위를 잡으면서까지 싸우는 것이 유치해 보였지만 그 때문에 더 재미를 주는 것 같다. 나는 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중요 부위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들었다.(독자C)

학생들의 독후감에도 나와 있듯이 독자들 중에는 유머스럽고 해학적인 장면을 접하면서 잠시나마 즐거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작품 속의 장면을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과 연관시켜 오버랩시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에 대한 열망을 담기도 한다. 이것 또한 독자들이 작품을 접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의 일종이다. 이처럼 김유정의 소설 「봄·봄」, 「동백꽃」은 유머스럽고 해학적인 장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미와 웃음을 선사해 주고 있다.

작품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독자에 따라 각기 다를지라도 몇 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문체면, 등장인물면, 서사구조면, 세계관 등 이 네 가지 면이 다른 소설들과 구별 짓는 고유한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²⁾ 문체면에서 웃기고, 등장인물면에서 웃기고, 서사구조면에서 웃기고, 세계관 면에서 웃긴다면, 유정의 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치료에서든, 즐거운 독서행위에서든, 문학적 인식은 심리적 해방, 유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이 점은 문학이라는 수단이 종교로서의 역할, 치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독자들이 이런 작품을 읽고 치료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점도 지닌다.

22)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이호림, 『유정의 소설은 왜 웃긴가』, 리토피아, 2008, 7-32쪽 참조.

4. 문학치료(학)의 장점과 그 제한점

문첼(Munze)에 의하면 병상에서 읽은 책은 자기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생각을 유도하는 기능”²³⁾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 점은 문학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과 유사하다. 잊어버리는 기능은 환자에게 안도감을 주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즐겁게 만든다.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기능은 교화하고, 감동시키고, 동요시켜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한다.

문학작품은 경우에 따라서는 몸의 치료학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남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장기간 병상에 누워 있는 생의 공백기를 메워 준다. 이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문학치료 또는 독서치료의 구체적인 효과를 아펠(Appel)의 견해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 1) 내담자(혹은 독자)로 하여금 인간 행위의 심리학과 생리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한다.
- 2)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
- 3) 관심을 넓혀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 4) 무의식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킨다.
- 5)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통해 보상을 체험하게 한다.
- 6) 자신의 무제를 알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다.²⁴⁾

문학치료가 우선 환자에게 자기의 병으로부터, 즉 현실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할 수 있고, 심리적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문학의 본질과도 연관된다. 이것이 문학의 일차적 경험에 속하며, 6)번은 이미 자신에 대해 인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차적, 즉 성찰적 단계라 말할 수 있다. 반면 문학치료는 다음과 같은 제약점도 지닌다.

23) 변학수, 앞의 책, 109쪽 재인용

24) Zit. nach Rubin, Bibliotherapy sourcebook, Oryx Press, London 1978, 214쪽, 위의 책, 110쪽에서 재인용.

- 1) 우선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는 단순히 듣거나 봄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접근하기 쉬운 반면, 문학치료에서의 독서나 글쓰기는 비교적 수동적인 수용 자세를 지향하기 때문에 글쓰기가 고통스럽고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 2) 허구적 상황들이 들어있는 문학텍스트는 - 체험적인 글에 비해-현실거부감을 가지게 하고 이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3) 문학텍스트에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이나 탈출구 없는 상황은 때로는 우울증이나 좌절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 4) 문학치료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어떤 문학텍스트는 환자에게 잘못된 인생목표를 설정시켜 그 환자를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²⁵⁾

위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문학치료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문학치료는 응용과학으로서 그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 사회에 독서치료를 적용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들의 인식능력, 사회적 소망, 경험의 정도에 맞춘 독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구 사회의 일방적인(종교, 사회, 가치관 등에서) 기준으로 마련된 독서치료를 준거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텍스트를 고를 때는 내담자/환자의 언어, 인지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문학수용에서도 마찬가지다. 문학이론에서 일반화하는 경향에 따라 문학을 긍정과 부정, 고상한 문학과 통속문학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내담자의 다양한 계층, 상황에 따라 치료효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알려진 문학을 주제별로 분류해 두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문헌이나 문학, 글쓰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 때 판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책과 각기 다른 가치관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의 성향, 문체, 그리고 작가의 취향 및 주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옳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힘들다.

또한 상담자의 입장(행동치료사, 심리분석가, 대화 심리 치료사, 의미치료사)에 따라 질병의 유형이 다른 관점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문학치료는

25) 위의 책, 99쪽.

아직까지는 이런 체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그런 병의 메커니즘이 여러 단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더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문예학적 측면에서 몇 가지 준거를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서술형식(일인칭 화자, 혼합 인칭화자), 텍스트의 구조, 글의 길이, 사건의 순서 등을 회기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²⁶⁾ 나아가 문학치료의 목표, 기능, 방법, 기술, 회기, 매체(은유, 상징) 등에 이르는 다양한 중재의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문학 이론적 가설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텍스트²⁷⁾가 호소구조이며, 미정성과 부정성에 근거한 표현인 반면, 독자/화자는 독서와 글쓰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그 표현을 자신의 의식 속에 표상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또한 문학은 함묵적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구분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민적 일상을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생활에서 소외되고 고통을 얻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 문학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학치료의 효과에 대한 임상 결과²⁸⁾에서 보듯이 문학의 효과가 어느 일정한 면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문학의 치료 기능, 나아가 문학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비언어적 예술 창작치료에 비해서 문학치료는 최소한 텍스트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문학의 존재이유를 말해주기도 하는 바, 문학의 실체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문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적합하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문학이란 이론적, 학문적 영역과 심리치료라는 실증적인 의학영역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점도 문학치료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제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문학이 구

26) 위의 책, 116-117쪽.

27) 여기서 텍스트는 작가가 생산한 문학작품일 수도 있고 개개인이 집단치료에서 생산한 글일 수도 있다.

28) 파르텍에 따르면 문학치료가 자기확신, 태도변화, 자기성취, 감정결손 환자의 치료에는 긍정적 효과가, 학습효과, 부부/성 관계, 불안해소 등에는 부정적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체적 귀결점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학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물론 부분적으로 귀결을 남기기도 하지만), 특히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약점이기도 하다. 29) 따라서 문학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감정이나 인지를 연구함으로써 문학연구에 실용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예술치료(미술치료, 음악치료, 춤/동작치료, 문학치료)에 대한 이론들은 서로 다른 장점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확실한 우열을 따질 수는 없다. 적용 영역이나 연령, 취향 등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론 다른 예술분야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점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특히 정신적인 질환이나 질병과 연계된 경우가 많고 또 그 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문화적·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현대인들에게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요구된다. 단순한 면담과 반복적인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것은 완치 이후라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후유증이 오랫동안 남는다. 따라서 예술적 치료요법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도되어 사회복귀가 용이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학치료는 예술치료 가운데 그 특성상 특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 테베의 도서관 정문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한다. 미지의 심적 세계가 용이 설명하듯이 집단적 무의식의 세계이든, 프로이트가 설명하듯 원초 자아의 세계이든 문학을 통해 우리는 그 심적 요소를 탐색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심리치료에서는 무의식의 그림자와 자기와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병리적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치료는 부조화에서 비롯된 내면의 그림자를 재인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9) 문학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의 병이 치유되고 어떤 효능을 지니는지를 입증해 주는 임상실험의 결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것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임상실험의 결과가 도출될 때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인문학의 특성 및 연구방법과 괴리된 측면을 지닌다는 점에서 학제성과 융합적인 연구방법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문학(독서와 글쓰기)은 진단적 용도와 치료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문학을 통해 치료자/상담자는 환자/내담자가 어떤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 또한 독서의 내용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부분을 망각하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얼마만큼 추가하는지를 관찰하면서 환자의 심적 상태도 진단할 수 있다.

글을 쓸 때도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사소하게 다루며, 어떤 (무의식적) 주제를 부각시키는지를 통해서 고착·퇴행된 심리를 관찰할 수 있다. 그것은 독서나 글쓰기를 통해서 투사한 이미지와 심리 역동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아가 환자/내담자/독자는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이것이 치료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문학의 해석이 리콰어의 말을 빌면, “그 해석자 자신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는 김유정의 소설 「봄 · 봄」과 「동백꽃」에 나타난 웃음의 기제와 그 적용을 통해 문학치료학의 관점의 적용과 그 가능성의 탐색에 주안점을 두었다. 근대소설의 작가 중에서 김유정의 작품은 유머스럽고 해학적인 장면이나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웃음을 자아냄으로써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수행한 점에서 일단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지닌다. 하지만 본고는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적용 및 효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개연성을 획득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러한 점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문학의 학제적 접근이나 응용학문과의 방법론적 교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론적 바탕이 약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치료보다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이론을 근거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점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적용은 제한적인 측면을 지닌다는 점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학이 대체로 구체적 귀결점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학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특히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약점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지닌다. 따라서 문학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감성이나 인지를 연구함으로써 문학연구에 실용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문학치료의 이론적 바탕의 심화와 연구방법의 보완은 물론이거니와 근현대소설의 여러 작품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문학치료학적 관점의 적용과 그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4.
- 김상태, 「김유정과 해학의 미학」, 전광용 외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322쪽.
- 김영기, 『김유정-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1992.
- 김현실, 「『안해』의 해학성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제115호, 1995, 327쪽.
-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료, 2005
- 박기석, 「문학치료학 연구 서설」, 『문학치료연구』 제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08
- 박세연, 『김유정의 소설세계』, 국학자료원, 1998.
-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5, 91-121쪽.
- 변학수,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6, 15-46쪽.
- 변학수·채연숙·김춘경, 「문학치료와 현대인의 정신병리」, 『뫼히너와 현대문학』, 26권, 2006.
- 안미영, 「김유정 소설의 문명비판 연구」, 『현대소설 연구』1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12.
- 우한용, 『한국 현대소설 담론 연구』, 삼지원, 1996.
- 유인순, 『김유정 문학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8.
- 이호림, 「유정의 소설은 왜 웃긴가」, 리토피아, 2008, 7-32쪽
- 임종국, 「식민지의 금광경기-김유정의 금따는 콩밭」, 『한국문학의 민중사』, 실천문학사, 1986.
- 장미영, 「고령화시대의 선진적 노년문화 조성을 위한 소설독서교육 방안」, 『국어문학』 제41집, 2006, 8, 279-282쪽.
- 전봉관, 「1930년대 금광 풍경과 ‘황금광시대의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7, 월인, 1999, 12.
- 전상국, 「김유정 소설의 언어와 문체」,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 전신재, 「김유정 소설의 구비문학 수용」, 『아시아 문화』 2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 전신재 편,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2k
- 전홍남, 「김유정과 성석제의 거리」, 『한국언어문학』 제47집, 2001.
-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8), 159-176쪽.
-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 치료, 2006.
- 조건상, 「김유정과 채만식 소설의 특질-해학과 풍자의 거리」, 『도남학보』, 1980. 3.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 최혜진, 「<심청전>의 문학치료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제4집, 2006.02
- 하은하, 『귀신이야기와 문학치료』, 문학과치료 2004.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78-80쪽.
- 한국소설학회 편,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새문사, 1996.
- 앙리 베르그 송, 정연복 역, 『웃음』, 세계사, 1992.
- Walter J. Ong, 이기우 ·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A Study on Exploring the Adaptation and Possibility using the Perspective of Literary Therapy in Modern Novels of Korean

Jeon, Heung-nam

The moderners have many diseases. They are various in forms, and especially related to mental illnesses. Thus, various kinds of remedies are required for the moderners, who have raised their intellectual and economic levels. Simple interviews and repeated medication are limited, and also have long mental and physical sequelae even after a perfect cure. Therefore, it would be recommendable to attempt art therapy collectively and actively, to rehabilitate patients. Among the art therapies, the literary therapy is especially expected to have a special effect when considering its features.

Methodologies of literary therapy mentioned here are expressed in too great a latitude, so it should be complemented more. However, it is surely more effective to approach with scientific and professional theory, rather than with weak theoretical basis.

In this context, I took Kim Yoo-jeong's novels as a subject of my

analysis, to see the device and effect of laughter, with an application of the viewpoint of literary therapy, and its possibility in consideration. Thus, this piece of writing is attempting to study the application of the viewpoint of literary therapy, and its possibility, through the device of laughter represented in Kim Yoo-jeong's novels, 'Bom Bom' and 'Dongbaekkot.'

Key Words : the crisis of literature and humanities, viewpoint of literary therapy, the epic of literary work, literary therapy, the epic of self, laughter, desire, the mechanism and effects of laughter, the perspectives of literary therapy, therapeutic narrative, fundamental epic.

이 논문은 2008년 6월 29일에 투고되었으며, 2008년 7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